

고려대-다음소프트

빅데이터 연구개발 위한 MOU 체결

지역축제, 관광분석 플랫폼 구축 등
신사업 모델 발굴, 연구 과제 협력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은 다음소프트와 지난 13일 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기반 축제 관광 콘텐츠 서비스(Content as a Service) 개발 ▲빅데이터 기반 평가 모델 개발 ▲국가 연구개발 과제 협력 ▲빅데이터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빅데이터 분야 인재 양성 및 인력 개발 교류 등이다. 김은기 단장은 "이번 협약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 축제와 관광분석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공동 추진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2019년 모든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ICT기반 '축제



권미경 다음소프트 이사(왼쪽부터), 윤준태 다음소프트 부사장,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 김은기 단장, 이영한 부단장 /고려대학교

절대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소프트와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평가지표로 활용, 전국의 우수한 축제를 선별한 바 있다.

다음소프트는 지난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리포트 서비스인 'AI Report'를 출시, 현재 이슈, 축제, 관광, 정책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글로벌한국학과 외국인 신입생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삼육대학교

삼육대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글로벌 리더 양성

삼육대 글로벌한국학과는 14일 2020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영식에는 올해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40명과 한국인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수강신청 방법과 교육과정, 학사일정, 장학금, 특성화 활동, 교수 상담 등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와, 외국인 신입생과 한국인 선배들이 함께하는 제기차기 놀이 웃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친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삼육대 글로벌한국학과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리는 국제적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 한국 교류·홍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됐다. 이론교육, 문화체험, 현장실습, 인턴십 실무교육, 글로벌 리더 특강 등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와 적용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3년만에 학사가능' 건국대 학은제 입학설명회

(미래지식교육원 학점은행제)

건국대학교미래지식교육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교내 산학협동관에서 2020학년도 학점은행제 입학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은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8개 전공(스포츠건강학, 사회복지학, K뷰티산업융합학, 의상디자인학, 부동산학, 경영학, 영상영화학, 국제무역학)의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수시, 정시에 관계없이 100% 면점으로 입학해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학위 취득 후 학사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 등도 가능하다.

입학생들은 도서관과 기숙사 등 각종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각 전공별로 평일 주간·야간, 주말 강의를 개설해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관계자는 "OT 및 MT, 축제, 체육대회, 등반대회, 동아리 등의 다양한 학생활동 제공과 타 대학 등록금 절반 수준의 저렴한 학습비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빠르면 3년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입학생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연세대 도서관에 '스마트 스페이스' 구축

첨단ICT 적용 실험적 혁신공간

대학 최초 '스마트 스페이스' 오픈
공모전서 학생들 아이디어 발굴
신기술, 창업·산학협력과 연계 지원

연세대 대학 도서관이 국내 대학 최초로 스마트 스페이스 'Y-Smart Space'를 구축했다.

연세대 학술정보원(원장 이봉규)은 14일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 100평 규모 공간에 대학 도서관 최초의 스마트 스페이스를 구축해 오픈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스마트 스페이스는 5G시대 융복합 서비스의 집결체로, IoT, 실감미디어, AI 등 첨단 기술요소가 융합된 지능형 공간이다. 연세대 학술정보원은 고등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스페이스를 조성해 다양한 ICT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스마트 스페이스는 특히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2018년 종합가구기업 (주)넵스의 스마트스페이스 연구기금 기부를 통해 공간 구축을 시작했고,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 스페이스 공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용했다.

수상작을 토대로 공간 설계를 진행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하고 감각적인 요소들을 실제 공간에 적용했다. 스마트 CCTV, IoT 환경관리, 스마트 어시스턴스 등 첨단 ICT가 적용된 실험적인 혁신공간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협업,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되는 창업이나 산학협력연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아울러 스마트 스페이스



연세대학교는 14일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에서 스마트 스페이스 오픈식을 개최했다.



연세대학교는 14일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에서 스마트 스페이스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우현 M RAG 대표(왼쪽부터), 임호균 연세대 생활과학대학 교수, 장양수 연세대 의과대학학장, 박용욱 (주)넵스 회장, 연세대 김용학 총장,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 이봉규 연세대 학술정보원장, 정영기 홍익대 중앙도서관장, 지인영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원장, 서광욱 Unity 코리아 총괄본부장. /연세대학교

와 연계된 실감미디어 전시 체험 공간 'Y-Scape'와 실감미디어 교육플랫폼 'AR Portal'도 함께 선보인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Y-Scape는 11미터 규모의 햅틱 스크린과 미디어 솔루션 연동을 통해 몰입감 높은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에는 산업융합형 실감콘텐츠보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실감콘텐츠를 전시해 학생들에게 실감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이다.

AR Portal은 최신 AR 기술을 기반으로 Y-Scape 공간을 가상현실로 재현하고 스마트 스페이스의 가구를 AR 기술로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학생들이 실감콘텐츠를 쉽게 경험하고, 실감콘텐츠 개발 커리큘럼을 통해 실제 개발 방법을 학습하도록 지원해 학생들의 실감미디어 제작 활용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형사 미성년 연령 만13세미만 하향 추진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
"중대한 학교폭력, 초범도 구속수사"
교육계, '실효성 의문' 우려 목소리

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축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한 살 낮추고,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올해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축법소년연령을 하향(만14세 미만 → 만 14세 미만)하고,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토

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 학생 선도와 피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기대된다.

특히 축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부가 교원, 학생, 학부모 5만4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9년10월1일~15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2.1%에서 2018년 2.8%, 2019년 3.6%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축법소년 연령 하향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은 다수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8년 '제1차

(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축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결정이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청소년 형사처벌 확대를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뼈대로 삼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축법소년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 감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는 데다가, 되려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년 법무부가 축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함에 대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인권위가 대검찰청의 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 중 15~18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25% 수준이었으나, 만 14세 미만은 지난 10년 간 줄곧 0.1~0.5% 수준이었다. /한용수 기자